

‘전남지사 선거’ 박지원 조기 점화 파장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당 ‘선공’으로 전남지사 선거가 조기 점화 조짐 양상을 띠면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 출연, 지방선거 출마설에 대한 물을 “전남지사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며 “지난 8월 휴가에 이어서 추석 연휴 광주·전남북 특히 전남을 살살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사실상 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회자의 확인 질문에 “그러면 맞다. 확신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어도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롭다”고 말해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전 대표는 실제 이번 추석 연휴 11~12일 동안 전남 시군을 돌아 사실상 출마를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즉답을 피했다.

일단 박 전 대표의 조기 ‘커밍아웃’은 국민의당과 민주당 전남지사 출마 예정자들에게 ‘선방’을 날린 모양새다.

국민의당 전남지사 예비 후보군은 내심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의 전남지사 출마 행보에 대해 일부 당원 사이에 “노욕

당내 주승용·황주홍 의원과 3파전 공천경쟁

민주당 이개호·노관규 등 거론…대안 후보도

이다.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나온 터라 조기 출마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이후 본격적인 전남도지사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던 당내 경쟁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와 주승용 의원(여수을),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간 3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는 국민의당 공천경쟁이 사실상 시작된 것이다.

박 전 대표의 ‘선제적 도발’은 민주당에도 자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광주·전남의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개호 의원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가 11명이나 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 의원은 최근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아직 결정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조기 출마 선언이 이 의원의 출마 결정 및 시

기애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사실 이 의원의 도지사 출마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의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 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밖에 하나 패배했을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 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주가 아닌 전남에서 낮은 국민의당의 당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표의 ‘인물론’이 통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통하는 박 전 대표가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추진력, 정치적 내공, 전국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정치적 생명을 거는 마지막 승부를 던진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런 민주당의 고민이 반영된 듯 전남지사 후보 전략공천 등 대안 후보로 나오고 있다.

최근 광주시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 위원장의 전남지사 차출론이 느닷



없이 나왔다.

이 부위원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의원도 “광주시장 후보들 사이에서 나온 조작극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일각에서는 재선 교육감으로 인지도가 높은 정민재 전남도교육감의 영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 박 전 대표의 출마선언으로 전남지사 선거가 조기에 후끈 달아오르게 됐다. 낮은 지지율을 인지로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민주당도 조기 후보를 가시화할지 관심이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광주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일 LH서 시민토론회

광주시가 13일 오후 LH공사 광주 전남본부 대강당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토크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크회에서는 광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방향, 도시재생 공동체센터의 역할, 주택도시 기금 지원제도 안내, LH 도시재생 사업 모델, 국내외 도시재생 우수사례 등 5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발표와 조선대 조용준 명예교수의 사회로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 자치구 재생업무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TF팀 회의를 수차례 열고 시민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129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발굴했다.

시 관계자는 11일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전남도교육청, 추석 맞아 전통 문화체험 활동

카자흐-키르기즈 공화국 직업교육 유학생 45명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재)은 지난달 28일 여수정보과학고, 순천공고, 별교상고, 전남미용고에 직업교육을 위해 재학중인 카자흐-키르기즈스탄 공화국 학생들과 교원 등 45명이 추석을 맞아 전통

문화 체험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추석맞이 체험활동은 함평군 미래교육발전 위원회(회장 양규모) 주관으로 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김성모

함평군비영회장, 양한모 학다리 중·고등학교법인이사장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체험행사는 한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전통문화 체험활동인 성묘, 장보기, 평소 사람을 배풀어 주는 분들과 조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올해 개봉된 영화 ‘택시운전자’를 통해 잘 알려진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 있는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도 기렸다.

특히, 일제 강점기 소련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난과 역경을 함께 회상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환 기자

한정승 인공고

사건 번호: 광주기법원
2017년 1415 상속한정승인
사 맏 자: 송 멤 씨 (530421-1001820)
최후 주소: 광주 동구 충장로 2-1 (충장로 57)

위 맏 송정승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재원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 신고 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재원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형산에서 제외함).

2017년 10월 12일

공고인: 송고장, 송고정,
주 소: 광주광산구 풍정로 39번길 19,
208동 103호(정자동, 수원지구)
호반베르디움 2차 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2017년 9월 29일
폐기기간: 2017. 10. 12 ~ 2017. 12. 13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 | |
|----------|--------|
| ■ 건설면허신청 | ■ 기장대리 |
| ■ 양도상속증여 | ■ 법인설립 |
| ■ 기업 진단 | ■ 외부감사 |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
통센터 30동 217호 (동암지구)
TEL: 062-603-1060 FAX: 062-603-1062
HP: 011-641-6152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산재업무 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동구, 숙원사업 특별교부세 13억 추가 확보

광주 동구가 ▲지원1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10억) ▲생활안전 CCTV 설치(3억) 등 2개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건립된 지 29년이 넘은 지원1동주민센터는 건물이 노후화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고 지역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하기에 공간이 부족했다. 특히 해당지역은 문화, 복지, 보건 등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해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동구는 이번에 지원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센터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된 것은 물론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 복리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광주 서구청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11일 광주복지재단 및 제공기관 대표 등 50여 명이 자리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지역 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구청과 제공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참석자들은 유사사업 통폐합 및 재구조화, 사업별 선정 우선순위 기준 마련 등 지역민들이 민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남구, 14일부터 주민화합 축제의 장 연다

광주 남구는 22만 주민들의 화합과 경로사상 고취, 이웃간 따뜻한 공동체 세상을 만들기 위해 10월 한 달간 동민 한마음 축제를 개최한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2017 동민 한마음 축제’가 오는 14일부터 28일 까지 2주간 일정으로 관내 16개동에서 열린다.

주민 정기자랑을 비롯해 노래자랑, 체육대회, 각 동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 등을 통해 동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 몇몇 동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돋기 위한 바자회 및 농·특산물 판매 행사 코너를 마련해 이웃 사랑 실천에도 나설 예정이다.

북구,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

광주 북구는 행정자치부와 매일경제 공동주관 제6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식기반 업무 추진전략, 지식행정·경영 활동, 지식활동에 의한 성과창출, 제4차 산업혁명 등 4개 분야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 실사를 이뤄졌다.

북구는 조직 내부 역량 강화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식행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광산구, 국유재산 우수관리 기관 선정

광주 광산구는 국유재산 우수 관리기관으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감 부총리상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광산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도로·하천 등 1만896필지 845만㎡ 2615㎡에 달한다.

광산구는 전국 국유재산대장 일제정비 추진 과정에 1만여 필지에 걸친 광범위한 자료를 현장 점검으로 확인했다.

이후 현장 상황과 지적공부를 대조해 등기·토지대장 유무, 사용 현황, 실태 등의 일자 여부를 살피고 일부 오류를 바로 잡았다.

광산구의 국유재산 보호와 관리 행정, 효과적인 처분 등이 돋보였다 는 게 심사를 주관한 기획재정부의 평가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구례·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www.ihonam.com



湖南新聞